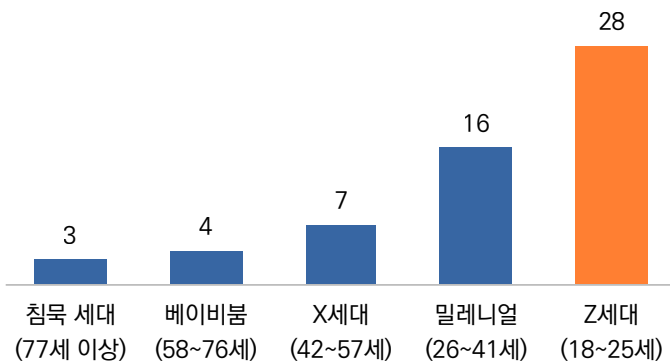




[미국 세대별 성소수자 인식] 미국 Z세대 10명 중 3명, ‘나는 성소수자!’

- 미국 설문 조사기관인 공공종교조사기관(PRI)이 올해 초 발표한 ‘성소수자 인식’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8세 이상 성인 중 자신을 LGBTQ(각각 레즈비언, 게이, 양성애자, 트랜스젠더, 퀴어의 영문 앞글자를 딴 약자로 성소수자를 의미)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세대별 비교 결과, Z세대(만 18~25세)가 28%로 월등히 높았고, 밀레니얼 세대 16%, X세대 7%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.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.

[그림] 미국 세대별 성소수자 인식 (18세 이상, 본인의 성소수자 동의 비율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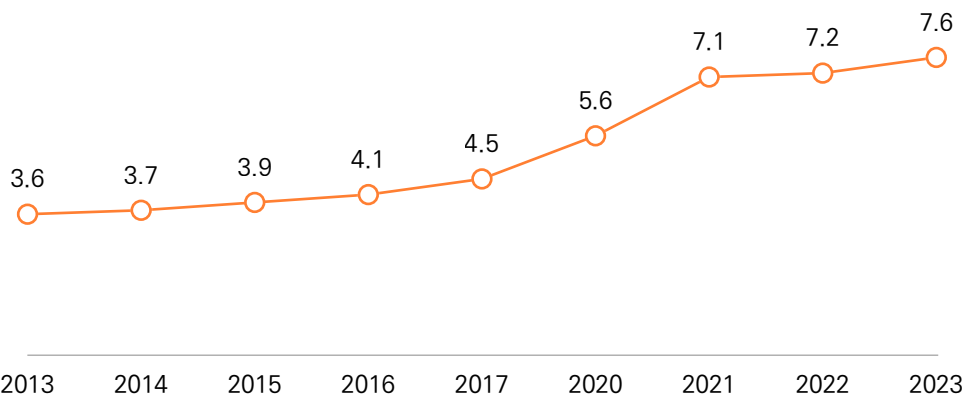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PRI(공공종교조사기관), A POLITICAL AND CULTURAL GIMPSE INTO AMERICAL'S FUTURE (부재: 세대 변화와 앞으로의 도전/기회에 관한 Z세대의 견해), 2024. 01.(13세 이상 미국인 6,616명, 온라인 조사, 2023.08.21.-09.15.)

Note) 위 설문은 Z세대 중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

‘나는 성소수자’ 동의하는 미국 성인, 2013년 3.6%→ 2023년 7.6%로 크게 증가!

- 본인의 성 정체성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?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조사한 성소수자 인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성인의 7.6%가 자신을 LGBTQ(성소수자)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10년 전 조사(3.6%)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.

[그림] 미국 성인의 성소수자 인식 비율 (18세 이상, 본인의 성소수자 동의 비율, %)



※출처 : 갤럽(GALLUP), LGBTQ+ Identification in U.S. Now at 7.6%, 2024.03.13.(18세 이상 미국인 12,000명 이상 대상, 전화 조사) (<https://news.gallup.com/poll/611864/lgbtq-identification.aspx>)